일본은 주인열풍… 新 포교 or 상품화 논란 가중

〈朱印:사찰서 공책 등에 절의 도장을 받아가는 것〉

박영빈 객원기자





▲ 다양한 주인장. 사진출처=진자메모 닷컴

◀주인을 써주는 모습. 주인은 불교 사찰과 신사 모두 행해진다.

SNS에 주인인증 위해 사찰 방문

현대적 도장 개발하는 사찰도…

"젊은 세대 포교에 긍정적이다"

"원래 의미 퇴색 된다"의견 분분

최근 일본서 유행하는 주인(朱印) 수집이 불교의 상품화를 야기한다며 논란이다.

일본의 '이와테 일보'는 6월 6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주인 문화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다. 주인(朱印)은 중세부터 일본 사찰에 전해져 온 전통으로, 절에 온 사람들이 참배했다는 증표로 공책이나 족자에 절의 도장과 본존불의 이름을 받아가는 것이다. 집에 불단을 모시는 풍습이 있는 일본에선 이 주인을 부처님으로 생각해 불단에 모시곤 한다.

그런데 최근, 기운이 좋은 곳을 방문하면 운세가 트인다는 '파워 스폿(power spot) 순례'가 인기를 끌면서 주인 수집이 유행하고 있다. SNS에 인증하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면서 더불어 주인을 받아가는 2~30대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찰들에선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주인과, 주인을 모으는 공책인 주인장(朱印帳)들도 등장했다.

이런 유행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지난 2014년 'NHK'가 특집 방영한 프로그램 '주인 걸(御朱印 girl)'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인들이 주인을 모으는 것이 조명되면서 주인 수집이 유행을 타게 되었다. 심지어는 주인 붐(御朱印ブーム)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주인 열풍으로 젊은 세대들이 절에 모이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본 현지 사찰들은 의미가 크게 왜곡된 현재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교토의 고찰 죠잣코지(常寂光寺)의 주지 나가오 켄유(長尾憲佑) 스님은 "시간을 내어 절을 들리고,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주인을 받고, 보시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전체가 중요한 일이며, 공덕이 되는 것이다. 단지 와서 도장과 글씨를 받아 가는 것으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배를 마치고 받은 주인을 SNS에 인증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순서를 생략하고 주인만을 받아 인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또 켄유 스님은 "원래 주인은 참배자가 써온 사경을 부처님께 올린 증명으로 받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참배 증명이 된 것이며, 그렇기에 지역이나 사찰에 따라 주인이라는 말 대신 납경(納經)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인장에 받는 도장과 글씨는 단순한 기념이 아닌, 각 사찰의 본존불과의 인연을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인을 받아가는 의미와 예절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교계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인 수집을 목적으로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찰예절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크다. 모 TV 프로그램에선 주인 수집을 스탬프 랠리(기념을 모으는 행사)라고 소개했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 주인을 받을 때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요금은 얼마인가?', '얼마에 되는가?' 등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켄유 스님은 "절에 보시를 하는 개념이므로 '얼마나 공양 올려야 합니까' 정도로 정중히 물어 달라"고 강조했다.

불교계의 비판을 인식해, 최근에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과 SNS 등에서도 바로 납경을 받는 모습보다 참배 후에 주인을 받는 모습과 예절을 홍보하고 있다.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인과는 별도로 진짜 기념 스탬프를 비치하는 곳도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대중을 향한 독특한 주인이나 주인장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 모 사찰의 경우 벚꽃시즌에 춘계한정 주인을 해준다고 홍보 하다가 교계의 비판을 받고 중지한 바 있다. 또 독특한 모양의 도장이나 글씨를 써주는 사찰들을 관광하는 '주인 투어' 등이 여전히 성황중이다.

신앙의 증표였던 일본의 전통 불교문화 주인(朱印)을 둘러싸고 불거진 문제들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日-中 가사 복원으로 유대 확인

토쇼다이지서 1,300년 전
중국 스님들께 공양한 가사 복원



가사 깃에 수놓인 사언절구. 사진출처=니혼케이자이 신문

일본서 중국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던 가사(袈裟)가 1,300년 만에 복원됐다. 이 불사는 일본 나라(奈良)의 세계문화유산인 토쇼다이지(唐招提寺)에서 진행됐다.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6월 6일 가사 공양으로 맺어진 중국의 스님 감진화상(鑑眞和尙)과 토쇼다이지의 이야기를 특별 보도했다. 토쇼다이지는 759년 감진화상이 당에서 건너와 창건한 고찰로, 오래 전부터 중국과 인연 맺은 율종(律宗)의 본산이다.

지난 가을부터 복원 작업이 시작된 가사는 가로 2m, 세로 110cm의 괴색으로 일본산 마(麻) 생지로 조성됐다. 복원을 위해 토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 보관중인 나라시대의 7조 가사를 참조했다.

가사의 깃에는 "山川異域　風月同天 寄諸仏子 共結來緣"라는 사언절구의 시가 수 놓여있다. 이는 "산천은 다른 땅이지만, 바람이 불고 달이 뜨는 하늘은 같다. 이 가사를 여러 불제자들께 올리니, 오는 인연을 함께 맺기를"이라는 의미다. 토쇼다이지 측에서는 이 사언절구에 감명을 받은 감진화상이 당에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됐다고 전했다.

고대 일본은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스님들에게 계를 줄 수 있는 계사와 계맥이 없었다. 또한 일본 스님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도 정식 승려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를 악용해 출가자를 사칭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일본 조정은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에서 율사를 모셔오기로 했다.

이때 당시 일왕의 손자이었던 나가야노 오키미(長屋王)의 발원으로 717년에 1천개의 가사를 조성해 당의 스님들께 공양했다. 그때의 가사 깃에 바로 위의 시가 수 놓였다. 1천개의 가사 중에 하나를 받게 된 감진화상이 이 시를 보고 일본과 불법이 인연이 있음을 알고 일본행을 결심했다고 감진화상의 전기에 전한다.

감진화상은 743년부터 6차례의 시도 끝에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다. 5회째 시도에는 병이 들어 실명한 상태였음에도, 오직 일본에 계를 전하겠단 사명감으로 일본행을 추진했다.

일본고대사 전문가인 토노 하루유기(東野治之) 나라대 명예교수는 "천태종의 조사였던 혜사(慧思)스님의 환생이 일본의 쇼토쿠 태자(聖德太子)라는 전설이 당시 당에도 전해져 있었다. 감진이 혜사의 학통을 잇고 있단 점에서, 가사의 시와 함께 일본에 불교를 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쇼다이지는 이렇게 복원된 가사 중 200개를 중국스님들에게 공양 올린다. 지난해 9월에는 니시야마 묘겐(西山明彦)장로가 20개의 가사를 감진화상이 주석했던 양저우의 따밍쓰(大明寺)의 대중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

묘겐 장로는 "감진화상께서 전해주신 계율로 일본불교가 큰 은혜를 입었다. 이번 가사공양은 보은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다시 20개의 가사가 전달될 예정이며, 2021년 3월까지 120개의 가사가 따밍쓰에 공양된다.

또 40개의 가사는 시안의 율종사찰인 징예쓰(淨業寺)에, 남은 가사들은 감진화상과 율종에 인연이 있는 사찰이나 단체에 공양될 예정이다.

묘겐장로는 "불교의 가르침은 국경을 초월한 것이다. 이번 교류가 양국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가사를 공양하는 의의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향수대신에 향을 발라요"

향수 대용품 가루향 개발



개발한 도향을 들고있는 개발자 이와사 카즈시 상무.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향수 대신에 몸에 바르는 가루향이 출시돼 화제다. 지난 6월 5일 '마이니치 신문'은 전통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타카마츠(高松)의 불교용품점 이와사 붓키도(岩佐佛喜堂)는 최근 바르는 가루향인 '도향(塗香)'을 출시했다. 향을 개발한 이와사 카즈시(岩佐一史, 32) 상무는 "원래 도향은 스님들이 몸을 청정히 하기 위해 사용하던 향으로 〈화엄경〉을 비롯한 경전에 자주 등장한다"며 그 시초는 불경에 있음을 밝혔다.

경전에 나오는 도향은 여러 종류의 향료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로, 불보살의 몸에 발라 공양하는 향이다. 일본에서는 스님들이 예불 전에 몸을 정화하기 위해 손이나 목덜미에 바르는 가루향을 도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도향을 향수를 대신해 쓸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개발한 것이 이와사 붓키도의 도향이다. 첫 개발은 지난 2014년이었다. 옆 도시에 소재한 사찰 콘조지(金倉寺)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절의 상징인 석류를 이미지로 도향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아시아 각국에서 구입한 10종류의 향나무가 조합된 첫 상품 '석류향'이 탄생했다.

개발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천연재료가 자연적으로 숙성되면서 기존의 향이 바뀌거나, 향료의 배합량과 비율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사고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사씨는 포기하지 않고 각 사찰들의 유명한 꽃이나 역사를 이미지로 한 향들을 개발, 현재는 30종류가 출시되었다.

인공의 자극적인 향수를 대신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와 각 사찰, 인터넷 주문이 쇄도 하고 있다. 대부분 3그람 당 800엔(약 7,800원)이지만, 비싼 것은 5그람에 1만엔(약 97,000원)을 넘는 고가품도 있다. 박진형 기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실천 하세요
재가불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생활하실 재가불자님을 모집 합니다.
내원궁 회향선원 입주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5년 동안 1인 1실 원룸에서 생활하고, 모든 숙식은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제공해 드리며, 5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즉, 생활 전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2인 1실은 보증금은 1억이며, 재가불자에 한하며 스님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많은 문의 및 방문 바랍니다. H·P 017-201-0037



▲ 1인 1실 원룸 내부 ▲



▼ 내원궁 건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 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